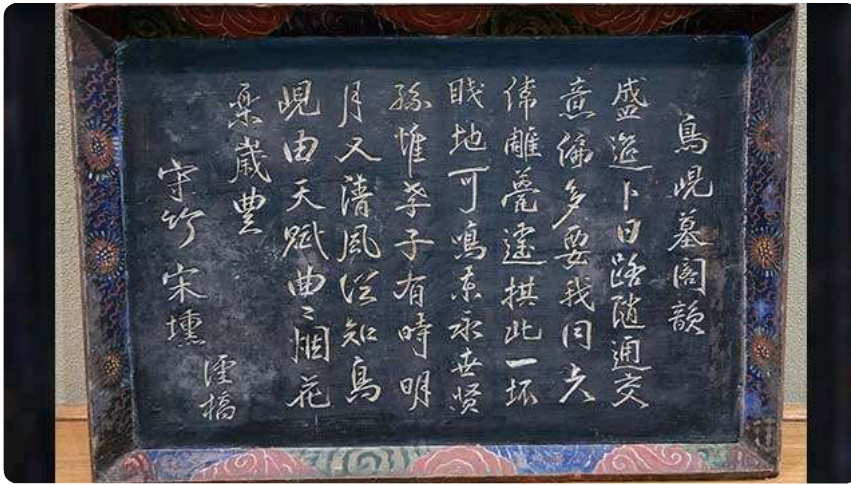


담양학교 세운 송훈의 시판, 다음 달 일본서 귀환

입력 2024.06.19 (14:10)

수정 2024.06.19 (14:12)

요약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송진우의 아버지이자 담양학교 설립자인 송훈이 직접 쓴 시판이 일본에서 돌아옵니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오늘(19일) 오전 일본 도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사무소에서 송훈이 쓴 '조현묘각운' 시판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판에는 송훈이 전남 담양군 창평면 조현 지역에 새로 지은 묘각을 기념하고 마을의 번창을 기원하며 적은 칠언율시가 담겨 있습니다.

바탕판과 테두리를 갖춘 전형적인 조선 후기 현판으로, 좌우 테두리에는 국화 무늬를 그렸고 상하 테두리에는 기하학적인 구름 문양을 배치했습니다.

'고하 송진우 평전(1990)'을 보면, 송훈은 신학문 수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개인 재산을 털어 신식 학교인 담양학교를 세웠으며, 아들 송진우 역시 담양군 창평에 있는 영학숙에 보내 신학문을 배우게 하는 등 선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시판은 다음 달 일본에서 국내로 운송된다"며 "보존처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언론과 대중에 공개하는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판은 일본 도쿄에서 고미술 거래 업체를 운영하는 김강원 대표가 기증한 것으로, 김 대표는 2022년에도 일본 유통 시장에 나온 한국 문화유산 '백자청화김경온묘지' 등을 발견해 우리나라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김 대표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국가유산청장 명의의 감사패를 김 대표에게 수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가유산청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운 대
허브로
단고속



수신
공영

KBS
이런 것도

많이

KBS

각 플랫폼

1 "비
로

2 바
이

3 윤
태'

4 푸
지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0

응원해요
0

후속 원해요
0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바지 벗고 길에 쪼그려 앉은 아이...제주 발각 뒤집은 영상



“비상 깜빡이 켜는데”...고속도로서 후진한 여성의 최후



순식간에 와르르...여름철 붕괴 사고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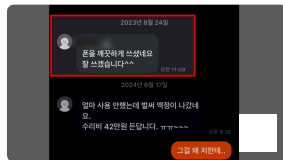
이첩 당일 쿨, 신범철·임기훈에게도 전화...분주했던 데...



내년 추석 연휴는 1주일을 쉰다!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선물받은 국견 알라바이 2마리 입국...“관저로 이동”



열 달 전 중고로 판 스마트폰...“수리비 42만 원 내놔”



주황색 물감 범벅된 영국 유적 ‘스톤헨지’...무슨 일?

AI 픽 인공지능이 연관 기사를 추천합니다.



일본, ‘파이브 아이즈’ 뉴질랜드와 정보보호협정 체결



일본, 북러 정상회담에 “안보 환경 한층 엄중...한미일 긴...



윤 대통령 “경북을 수소산업 허브로 키우겠다”...영일만 ...



주황색 분말 뒤집어 쓴 스톤헨지...도대체 왜? [이런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회원가입 NO! SNS 계정으로 3초 로그인!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분야별	TV 뉴스	프리미엄K	시사프로그램	지역뉴스
전체	1TV 뉴스	취재K	시사프로그램	부산
정치	06:00 뉴스광장 1부	심층K	시사기획 창	울산
경제	07:00 뉴스광장 2부	취재후·사건후	일요진단 라이브	창원
사회	09:30 930뉴스	여심야심	더 보다	진주
문화	12:00 뉴스 12	데이터룸	남북의 창	대구
IT·과학	14:00 뉴스 2	팩트체크K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안동
국제	2TV 뉴스	탐사K	재난방송센터	포항
재난·기후·환경	10:00 아침뉴스타임	씨네마진국	사사건건	광주
생활·건강	15:00 뉴스타임	스포츠K	인사이드 경인	목포
스포츠	18:00 경제콘서트 NEW	뫼北뉴스 NEW	라디오	
연예	20:30 월드24	글로벌K	전격시사	
날씨	뉴스특보	영상K	성공예감	
이슈			시사본부	
			뉴스레터K	
KBS 소개	시청자권익센터	사이버 감사실	광고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윤리강령	KBS N 채널

KBS /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여의도동) / 대표전화 02-781-1000 / 기사배열 책임자,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KBS뉴스 인터넷 서비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 시청자상담실 02-781-1000 / 등록번호 서울 자00297 (2010년 6월 23일)

Copyright KBS All rights reserved.